

알렐루야! 알렐루야! 알렐루야!

주님 참으로 부활하셨도다.

주님 부활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!

텅 빈 성당에서 신부들끼리 부활성야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.

그러나 비록 함께하진 못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깨닫게 해 주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.

힘겨운 이 사태가 우리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줍니다.

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, 탐욕을 깨닫게 해줍니다.

오늘의 이 사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이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보다 더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.

고통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는 순간입니다.

우리 모두 다시 함께 모여 하느님께 찬미와 제사를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새 날, 새 세상을 꿈꿔봅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

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

2020. 부활대축일

주임신부 구본영 바오로

추신: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성당문이 열려있으니 좋은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.

부활성수, 성지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